

##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

김 분 한<sup>1)</sup> · 김 윤 속<sup>2)</sup> · 정 연<sup>3)</sup>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암에 의한 사망률이 지난 10년간 17.4% 증가하였으며, 한국인의 10대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전체 사망자 242,730명 중 60,086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3).

현대의료기술의 발달은 암 환자의 생존율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으나 완치는 어려워 만성화되고 있으며 생명 연장의 시간들을 가정이나 호스피스 기관에서 보내게 된다(Yong & Hong, 2004).

과거에 비해 가정이나 호스피스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신적·육체적·사회적·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호사나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사업가, 목회자, 상담가, 자원봉사자 등의 호스피스 팀 접근이 요구된다(Kim, et al, 1999).

호스피스 간호를 위한 구성원의 사명은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 그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함으로써 환자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남은 가족은 사

별 후에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호스피스 요원은 호스피스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환자와의 의사소통, 환자 가족의 문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와 죽음의 준비와 과정을 받아들인다. 호스피스 요원 중 자원봉사자의 의미는 임종 환자에게 있어 일반 병원에서의 간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호스피스 정신을 유지하고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있다(David, Seibold, Rossi, Berteotti, & Soprych, 1987).

호스피스는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는 완치될 수 없는 대상자가 여생을 충만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환자에게는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유가족에게 사별 후에 삶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호스피스는 병원, 가정, 호스피스기관 등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하다(Kim et al., 1999).

이러한 호스피스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돌봄에 대한 봉사를 제공하게 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환자 및 가족과의 일대일 만남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82년 미국의회에서 인간적인 건강관리 입법으로

주요용어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돌봄

1)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3) 한양대학교 원격간호대학원 튜터

호스피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차원에서 호스피스 사업을 권장하였고(So & Cho, 1991), 그 이후 호스피스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문들은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요구도 조사(Cho, Kang, & Kim, 2002; Kang, Kim, & Kim, 2004), 사례 연구(Kim, 1999) 등 호스피스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실무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객관주의와 조작주의 등과 같은 양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론인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실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귀납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개인적이면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경험을 그들의 언어로 직접 표현하게 한 후 그 진술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경험의 본질을 창조적인 직관을 가지고 도출해냄으로써 개개인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경험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람의 현상을 기술할 수 있게 된다(Ahn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죽음에 직면해 있는 암 환자를 돌보고 환자들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준비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간호중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의 효과적인 암 환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전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 II. 연구 방법 및 자료 분석

###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K교회 소속 호스피스 선교회에서 호스피스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3명과 경기도 B 보건소 호스피스 관리 사업 센터에서 호스피스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연구자 준비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진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의미에 보다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및 현상학 과목 학점을 이수하였고 또한 면담기법을 익히기 위해 상담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과목을 학점으로 이수하고, 현상학적 접근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질적 연구자로서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4월 5일까지 약 4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자료의 누락과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에 더욱 심층적으로 몰입하기 위해 사전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 녹음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은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상자의 집과 연구자의 집에서 실시하였고,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이었다. 면담시 '호스피스 자원 봉사시 암 환자 돌봄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지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어떠한 동의나 판단, 연구자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들의 말에 가볍게 비언어적 의사표현과 짧은 응답으로 참여자들의 말을 경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명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4-5차례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얻었으며 자료 분석은 7명의 대상자로부터 나온 의미 있는 자료들을 추출한 다음 연구 참여자에게서 포화되어 나타난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Colaizzi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 심층면담을 한 후 녹음해온 내용을 여러 차례에 반복해서 들으면서 대상자의 진술 그대로를 글로 옮겨 기술하였다.
- 2) 기술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현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의미를 추출하였다.
- 3) 추출된 문장과 구절들의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기술하기 위해 다시 원 자료로 돌아가 확인하였다.
- 4) 구성된 의미에서 주제를 뽑고 각 주제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들을 분류하였다.
- 5) 분석된 내용들을 하나의 기술로 통합한 후 이것을 연구 현상의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진술로 최종적으로 기술하였다.
- 6) 최종적인 기술을 타당화시키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와의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 5. 연구 진행에 따른 윤리적 문제 해결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자료 수집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구하였고, 익명성의 보장과 함께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면담도중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자료 분석과정에서는 연구자들 간의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대신 부호로 언급하였으며, 자료 분석이 끝난 후에는 녹음한 테이프를 폐기처분하였다.

## III. 연구 결과

<Table 1> Characteristics

(N=7)

Participant	Age	Sex	Religion	career	frequency (q week)	hours(q time)
A	48	F	protestant	14yrs	1	3-4
B	58	F	protestant	14yrs	2	3-4
C	47	F	protestant	5yrs	1	2-3
D	49	F	catholic	3yrs	1	1-2
E	54	F	buddhist	7Ms	1-2	2-3
F	58	M	catholic	7Ms	5-6	5-6
G	52	F	buddhist	3yrs	2-3	1-2

### 1. 연구 참여자의 배경과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Table 1>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연령이 40대가 3명, 50대가 4명으로 중년으로 구성되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3명, 천주교가 2명, 불교가 2명으로 모두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봉사 경력은 7개월부터 14년까지 다양했으며,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1주일에 1-2회 정도의 호스피스 자원 봉사 활동을 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참여자 A는 임종에 가까워진 노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호스피스 봉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참여자 B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타인을 위해 조용히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였으며, 참여자 D는 죽어가는 가족의 돌봄에 대한 힘들음 경험하면서 호스피스 봉사를 생각하였으며, 참여자 C, E, F, G는 우연히 접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2. 주제 모음

본 연구는 7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도출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는 총 104개였으며, 일차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에 관한 진술들에서 각 개인의 개별적 경험들은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10개의 주제로 도출되었으나 타당화 과정을 통해 사랑의 메신저, 영적 돌봄, 신뢰를 형성함과 관련된 주제 3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주제 7개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 있는 주제 7가지는: 1) 두려움을 경험함 2) 한계에 부딪힘 3) 사회적 돌봄을 경험함 4) 신체적 돌봄을 경험함 5) 좋은 죽음 6) 재충전의 필요성을 경험함 7) 사별가족 돌봄을 경험함 등으로 나타났다.

주제 1은 '두려움을 경험함'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암 환자를 처음 접하면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한다. 혼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고,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기 보다는 타인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암 환자를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차츰 용기를 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볼썽하다, 치근하다, 가까이 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방문할 때는 혼자 못가요. 무서워서... 초자가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코에 호스를 넣을 때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주제 2는 '한계에 부딪힘'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암 환자를 돌보고자하는 용기가 생기기 돌보고자 하나 환자들이 호스피스 봉사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다. 열정적인 마음으로 환자에게 한없이 봉사하고 싶으나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환자를 경험하게 된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의지 보다는 대상자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조차도 환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혼자 집에 있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들은 외로워서 쉽게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방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다. 누가 오면 치워야하고 물어보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면서 개방하는 것을 싫어한다”, “처음에 갔을 때는 문도 안 열어주고, 집 앞에서 20분 기다리다가 전화해도 안 열어준다.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런 일 하고 있나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만 가자는 생각도 했다”, “환자를 돌보다보면 한계를 넘어서 어쩔 수 없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를 만날 때는 신앙의 색채를 내면 안 된다”

주제 3은 '사회적 돌봄을 경험함'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암 환자들에게 거절당하지만 환자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면서 마음의 벽들을 허물어뜨린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집안 청소를 해주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하여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을 찾아가서 경제적,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돌봄은 암 환자와 가족들과의 친밀감을 형성시키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암

환자를 위한 경제적 및 물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는다.

“가족에게 개인적인 복음을 보고 오도록 한다. 그동안에 동박주겠다고 했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낯기어다 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지관을 찾아가서 재정 및 물질 후원을 부탁했어요”, “음식도 맛있게 먹고 식이요법도 해주고, 부인이 긴치름 닦을 때 도와주면 마음이 여련다. 그러면 우리들 쉽게 접하게 된다.”

주제 4는 '신체적 돌봄을 경험함'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오랜 투병생활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신체적 돌봄을 통해서 신뢰감이 형성되고, 자신의 방문을 기다린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암 환자들은 통증이나 기운 없음으로 인해 먹는 것조차 힘들어져 자신의 위생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신체적 돌봄이 암 환자들을 감동시킨다. 가족들조차도 지지분하고 냄새나서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돌봐주는 것에 대해 감사해 한다.

“환자가 대변을 못 봐서 관장을 했는데 설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설사를 다 받아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환자가 낯기가 되어 아파할 때는 주물러주면 너무 아파한다. 그렇대는 가볍게 닦여주는 형식으로 해야 시원해 한다. 하지만 발이 부어있을 때는 주물러주면 너무 시원해 한다”, “처음에는 머리를 언제 깎았는지? 목욕은 언제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지지분하고 냄새가 났으나 방문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씻겨드리니 환자들이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아했어요”

주제 5는 '좋은 죽음'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호스피스 돌봄의 최대의 목표는 암 환자들이 좋은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암 환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하고, 죽음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암 환자들 마음속에 자신과 가족 및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들로 가득차 있음을 보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가족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임종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 암 환자의 죽음의 수용 및 가족이나 타인과의 관계성 회복은 암 환자를 변화시켜 과거에 짜증스러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진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신앙을 초월해서 만난다. 종교가 다름지라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환자 자신이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자들은 다음에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달라져 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영적인 케어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환자들이 돌보려는 사상이 없어서 마음에 차 증오하다시피 한다. 서서히 용서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짜증난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 6은 '재충전의 필요성을 경험함'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암 환자를 한번만 만나더라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이 소진됨을 경험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암 환자의 효과적인 돌봄을 위해 매일 매일 환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암 환자 돌봄에 전념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들을 나눔으로써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암 환자를 돌보지만 환자마다 죽음에 대한 다른 반응을 경험하여 새로운 환자를 만날 때 경험이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황하는 경험이 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환자 돌봄에 대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경험하였다.

“한번 봉사를 가더라도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봉사를 가더라도 2-3시간 정도지만, 전력을 쏟아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중대로 재충전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나 자신이 먼저 충전이 되어 보 초되어야지 다음에 봉사 갔을 때 더 잘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건강해야 암 환자도 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환자들의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호스피스 교육이 필요해요”

주제 7은 '사별 가족 돌봄을 경험함'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사후의 가족들의 삶을 살피게 되고, 특히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슬픔을 극복하고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별 가족을 돌봄을 경험한다. 경우에 따라서 관계를 유지시켜주었던 환자의 사망으로 만날 명분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추모 1주년을 계기로 만남을 정리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가족과 만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없어지기도 하지요”, “환자가 돌아가시면 적어도 장지까지는 떠나가고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죠”, “적어도 1년 정도는 사별가족과 만나는 것이 좋을 듯싶어요”, “순직히 가족과의 만남을 끊는 것이 참 어색한데, 가장 좋은 것은 1주기 추모 행사때 참석함으로써 정리를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환자 가족에게도 좋을 듯싶어요”

### 3. 최종진술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합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 현상에 대한 최종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처음에 어떻게 환자에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고, 환자와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암 환자를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차츰 환자와 만남을 즐거움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암 환자와 만남은 순조롭지 않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만, 환자와 가족을 위해 함께 일하고 나눔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마음의 벽들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인 돌봄은 가족과 환자에게 쉽게 접근하게 해주고, 경계하는 마음까지 무너뜨린다. 또한, 돌보는 암 환자의 신체적 돌봄은 더욱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해준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적 돌봄이나 신체적 돌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암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좋은 죽음 맞이하는 환자의 썩어간 얼굴을 환하게 변화시키고, 가족과 타인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주었다.

이렇게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에서 봉사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소진됨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경험한다.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재충전의 시간들이 필요함을 경험한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살아 있을 때의 암 환자뿐만 아니라 사별 후 가족까지 돌봄으로써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 IV. 논 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암 환자를 처음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경험함과 떨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당황스러운 사건으로 불안, 두려움을 경험함을 제공하는 것(Lee & Lee, 2001)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주 돌봄 대상이 말기 암환자로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돌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호스피스 대상자의 거부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대상자와 가족이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기피한 결과와 유사하였다(Kim, Jung, & Park, 2002). 이는 환자의 건강문제로 인한 귀찮음이나 가족의 방문객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거부한 것으로 사료된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적 돌봄과 신체적 돌봄을 경험하게 되는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호스피스 케어 요구도에서 신체적 돌봄, 정서적 돌봄, 사회적 돌봄 등으로 분류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Cho, Kang, & Kim, 2002). 또한 호스피스 환자의 돌봄 요구에 대한 유형 분석에서도 신체적 돌봄 요구형, 정서적 돌봄 요구형, 영적 돌봄 요구형, 사회적 돌봄 요구형 등으로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Young & Hong, 2004). 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암 환자와 가족의 접촉에 있어서 사회적 돌봄을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암 환자의 신체적 돌봄을 통해서 암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 21가지의 다양한 신체적 간호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청소, 빨래, 식사 보조, 반찬 만들어주기, 설거지, 시장보기, 이부자리 관리, 기저귀 사다줌, 다과 나눔과 과일 선물, 쓰레기 정리 등 10가지의 사회적 돌봄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환자들이 고마워함이 매우 컸고, 신체적 간호와 사회적 돌봄은 환자로 하여금 자원봉사자의 방문을 기다리게 한 결과(Kim, Jung, & Park, 2002)와 유사하였다. 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돌봄과 신체적 돌봄이 암 환자와의 관계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말기 암환자의 사회적 돌봄과 신체적 돌봄을 통해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연계해줄 사회복지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좋은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다리 역할을 할 성직자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암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가족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는 호스피스 대상자들이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긍정적으로 죽음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Kim et al., 1999). 즉 암 환자가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내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호스피스 대상자들은 품위 있는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담주지 않으면서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죽는 것이라고 하였다(Yun, et al, 200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암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재충전의 시간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암 환자를 돌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소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암 환자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음으로 사료된다.

또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암 환자의 죽음으로써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별 가족을 돌봄으로서 사별 가족들의 삶의 재구성을 통해 적절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봉사의 영역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후 유가족 관리까지 포함될 때 돌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초기 활동시 환자와의 만남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2-3명이 한조가 되어 방문하거나 호스피스 방문 간호사가 함께 방문함으로써 두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4월 5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 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의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의 7가지 주제를 확인하였는데, '두려움을 경험함', '한계에 부딪힘', '사회적 돌봄을 경험함', '신체적 돌봄을 경험함', '좋은 죽음', '재충전의 필요성을 경험함', '사별가족 돌봄을 경험함' 등이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처음 환자를 접할 때 두려운 마음이었으며, 봉사활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사회적 돌봄, 신체적 돌봄을 통해서 신뢰감이 형성되고 암 환자가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환자의 돌봄은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으로 자신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고, 환자뿐만 아니라 사별한 가족까지 돌아보는 경험을 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암 환자 돌봄에 대한 경험을 다양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을 탐색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소진된 경험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재충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함이 필요하다.

## References

Ahn, Y. H., Kim, D. R., Seo, B. N., Lee, K. E., Lee, E. H., & Yim, E. S. (2002). Clinical nurses' lived experi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ward setting of the hospital. *J Korean Acad Nurs*, 32(3), 295-304.

Cho, H., Kang, H. S., & Kim, J. H. (2002).

Survey on the Hospice Care Needs of Hospice Volunteers, *Korean J Hosp & Palliat Care*, 005(02), 155-162.

David, R., Seibold, S. M., Rossi, C. R., Berteotti, S. L., & Soprych, L. P. (1987). Voluteer Involvement in a Hospice Care Program, *Am J Hosp Care*, 4, 43-55.

Kang, K. A., Kim, S. J., & Kim, Y. S. (2004). The Need for Child Hospice Care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Cancer, *Korean J Hosp & Palliat Care*, 007(02), 221-231.

Kim, B. H. (1999). The Comparison of Hospice Care by Nurse, Volunteer and Minister, *Korean J Hosp & Palliat Care*, 002(01), 46-53.

Kim, B. H., Kim, M. S., Kim, H. K., Jeong, T. J., Tak, Y. R., Kim, H. R., & Chon, M. Y. (1999). Development of an Education Program for Hospice Care and Its Performance. *J Korean Acad Nurs*, 29(3), 576-584.

Kim, B. H., Jung, Y., Park, K. B. (2002). The Analysis of Activities and Satisfaction of Volunteers for Hospice Care, *Korean J Hosp & Palliat Care*, 005(02), 163-171.

Lee, M. R., & Lee, W. H. (2001). Hospice volunteer's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Korean J Hosp & Palliat Care*, 004(01), 57-67.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3). *Korean Statistical Yearbook*, Seoul, Korea.

So, W. S., & Cho, K. J. (1991). A Study on The Effects of Hospice Care for the Quality of Life of the Terminally-Ill Patients, *J Korean Acad Nurs*, 21(3), 418-435.

Yong, J. S., & Hong, H. J. (2004). Care Needs of Hospice Patients in Comparison with those from the Family Caregivers' perspective: Q methodology, *Korean J Hosp & Palliat Care*, 007(02), 153-168.

Yun, Y. H., Rhee, Y. S., Nam, S. Y., Chae, Y. M., Heol, D. S., Lee, S. W., Hong, Y. S., Kim, S. Y., & Lee, K. S. (2004). Public

Attitudes Toward Dying with Dignity and Hospice-Palliative Care, *Korean J Hosp & Palliat Care*, 007(01), 17-28.

- Abstract -

## Hospice Volunteer's Experiences in Caring for Cancer Patients

Kim, Boon-Han<sup>1)</sup> · Kim, Yoon-Sook<sup>2)</sup>  
Jung, Yun<sup>3)</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2)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3) Tutor, DNG, Han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explored the meaning of hospice volunteer's experience in caring for cancer patients and tried to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7 participant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Jan. to Apr. 2005. Collection of data was by means of in-depth interviews.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made the phenomenological analytic method suggested by Colaizzi(1978). **Result:** The result is consisted of nine theme-cluster: experienced a fear, limitation of activity, experienced social care, experienced physical care, good death, experienced necessity of recharging, experienced bereavement care. **Conclusion:** The result above indicated that health professionals must develop the management and education of volunteer of hospice care for various hospice care. Also, We should to encouraged the continuous educa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Hospice, Volunteer, Care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Yoon-Sook  
54-2, Junggok 2-dong, Gwangjin-gu, Seoul 143-898, Korea  
Tel: +82-31-729-5379 Fax +82-2-2220-1163 E-mail: well67@paran.com